"국힘의 변화, 불가역적 변화였으면"

5·18기념식 참석 이준석 대표
호남에 대한 진정성 노력의 결정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긍정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8일 당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총 출동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저희의 이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이 이렇게 5·18 기념식에 와서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을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나"라며 "저희 당에서 2년 가까이 해왔던,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 묘역 '무릎 사죄'에 이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5·18 묘역 참배와 광주·전남 방문 등 그동안 추진해온 '호남 공들이기'가 성공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을 두고도 "개별적으로 제창하는 분도 (과거에) 있었지만, 오늘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제창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도 이제 광주·호남에서의 과오를 딛고 지역 일자리, 산업 발전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겨룰 것"이라며 "이번(지방선거)에도 광역단체장부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냈기에 앞으로 민주당도 호남에서 저희를 경쟁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목표로는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당선'과 '전북·광주선거에서 역대 지방선거 최대 득표율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국회 헌정특위를 제안한 데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서도 "지금 총리 임명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빨리 협조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에 넣는 것은 개헌을 상정하는 것인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권력구조 개편 등 큰 과제가 등장하게 돼 있다"며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이 없고 기약이 없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 변화 등 여러 논의가 있을 텐데, 큰 틀에서의 정치적 논의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에 대해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더 큰 통합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5·18기념식 참석하는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호중 "헌정특위 구성 5·18 헌법 전문 수록 즉각 착수"

민주, 광주서 중앙선대위 회의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 하반기 원구성 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의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5·18 진실규명과 광주정신 계승은 정파를 초월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 "민주당은 광주 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정의로움으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유, 인권' 외에 이 분이 아는 5·18 정신이 뭔지 조금 궁금했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진실규명 위에 화해와 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검 차장 이원석·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광주 고검 차장검사 신성식
이성윤·심재철 법무연수원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과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광주고검 차장검사로는 순천고 출신의 신성식(56·27기) 수원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고위간부 등 인사를 23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고검장급)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이후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9년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이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된 신성식 검사장은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10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을 역임하고 2020년 8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게 된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신 국장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이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순정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 보좌했고,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2년 4개월만에 재출범

고검 검사급 단장 등 총 48명 규모…서울남부지검에 설치

라임·옵티머스 등 수사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2기 합수단'이 출범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배경 탓에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됐던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 경제·일자리,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것"

국힘 지도부, 광주서 연석회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광주의 발전과 미래, 광주의 경제, 청년 일자리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등은 이날 주 후보 사무실에서 '광주시당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14명의 광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열심히 뛰어 광주 정치지형을 바꾸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30년간 민주당 일당 독점정치로 인해 호남정치와 호남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호남발전의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두 자릿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에서 국민의힘 싹을 틔워야 한다"면서 "광주에서 국민의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